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6호 【루게 제24814호】 주제104(2015)년 2월 5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 화장품 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 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안정수동지, 한광상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재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김여정동지, 신만균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공업부문에 주신 교시를 연구하다가 장군님께서 품들어 꾸려주신 평양 화장품공장의 생산실태를 알아보고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을 안겨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구내에 건립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 사적비와 모자이크벽화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03년 8월 새로 개건된 평양 화장품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 화장품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그리도 만족해하시며 생산정상화와 제품의 질제고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그마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 화장품공장의 생산공정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 화장품의 품질을 담보하고 그 판리를 원만히 할수 있게 하는데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석 및 검측설비들을 그르흔히 갖추기 위한 사업,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포장용기와 상표도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 새로 꾸린 과학기술 지식보급실도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어디가나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을 꾸려놓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있는 것이 하나의 풍경으로 되고있다고,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일수 있게 과학기술지식보급

화장품 하나도 그것이 우리 인민들이 사용하는것이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공장에 명도의 자욱을 새기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화장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화장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공장을 인민의 사랑을 받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장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화장품직장, 세수비누직장, 건보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공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가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우리 녀성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다 아름답고 고상하면서도 문명하게 할뿐 아니라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화장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사람마다 화장품에 대한 기호와 요구가 서로 다른것만큼 크림, 향수, 살결물, 연지, 머리기름, 화장비누 등을 여러가지 기능과 효과를 나타낼수 있게 잘 만들며

천연적이고 저차극적이며 기능적인 화장품들을 개발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은하수》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팬찮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제품들과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화장품을 생산하는데 모를 박고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화장품의 질을 부단히 높여 우리 인민들이 다른 나라의것이 아니라 《은하수》 상표를 단 우리의 화장품을 먼저 찾게 하고 나아가서는 《은하수》화장품이 세계 시장에서도 소문이 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실운영을 잘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은하수원을 돌아보시고 자체의 힘으로 편의후생시설들을 잘 꾸렸다고, 일군들이 로동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마음쓰고있는것이 알린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내외부가 위생문화적으로 깨끗한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당의 요구에 맞게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높은 수준에서 확립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께서 도와주셨으니 평양화장품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공장, 만점짜리 공장, 우리 나라 화장품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완전히 일신시키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화장품 공장은 우리 당이 깊이 관심하는 공장이라고, 올해를 화장품공업발전의 분수령이 되게 하자고 하시면서 공장의 종업원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평양화장품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한평생 인민생활문제를 두고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더욱 분발하여 떨쳐나 생산과 제품질제고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현대적인 실험실습설비들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교육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현대적인 실험실습설비들을 선물로 보내주시였다.

후대교육사업을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새 세기 교육혁명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김일성종합대학을 주체교육과학의 최고전당으로 더 훌륭히 꾸려주시기 위해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설비들 마다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교육중시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며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제강국으로 빛내이시려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이 어려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종합

대학에 보내주신 선물들 전달하는 모임이 4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 동지와 대학의 일군들, 교직원, 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선물전달사를 최태복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을 진두지휘 하시는데 바쁘신 속에서도 대학의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발전을 위해 수많은 현대적인 실험실습설비들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의 대학으로 내세우시려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새 실험실습설비들이 갖추어짐으로써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에게 궁핍 같은 살림집을 안겨주시고 후방공급

사업개선을 위한 조건도 마련해주신데 이어 또다시 현대적인 실험실습설비들을 그분에게 갖추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자애로운 아버지, 위대한 스승이시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폭풍쳐 내달려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부총장 리국철, 초급당비서 현민, 소장 리덕환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 같은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새기고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 지식경제강국으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대학생들이 귀중한 대학시절의 분과 초를 탐구의 열매로 빛내이며 조직생활과 실천활동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함으로써 앞날의 조선을 떠메고나갈 선군혁명인재로 튼튼히 준비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실험실습설비들을 애호관리하고 적극 리용하여 최첨단과학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음으로써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파시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나라의 교육사업과 과학기술발전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이 앞장서나갈것을 바라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교육과학연구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선물을 안고 땀땀이 들어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탄자니아혁명당 전국집행 위원회에 축전을 보내였다

다르 에스 살람

탄자니아혁명당 전국집행위원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탄자니아혁명당장군 38분께 즈음하여 귀 당 전국집행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사이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당을 강화하고 나라의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귀 당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 104(2015)년 2월 4일

평양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광명성절경축 쿠웨이트준비위원회가 1월 27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쿠웨이트 아시아기자협회 위원장인 쿠웨이트 타임스출판사 행정국장 자위드 야흐마드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1월 27일부터 2월 18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선군혁명명도업적을 칭송하는 글들을 출판보도물에 게재하며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광명성절경축 마자르준비위원회가 1월 29일 부다페슈트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마자

르동당 위원장 류르메르 풀라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를 광명성절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수도와 지방들에서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자

1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열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업무를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여러 부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첫달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기계공업성에서

기계공업성에서 뜻깊은 올해의 첫달계획을 농업생산액적으로 1.8배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계획수행기간 각기 공장, 기업소들에서 중요대상설비생산투입이 어느때보다 힘차게 벌어져 성적으로 발전기와 타닌, 변압기, 전동기, 공작기계, 배어링, 전력캐벨을 비롯한 1월 중요지표생산과제가 성과적으로 결속되었다.

성인애 각기 공장, 기업소들의 일터마다에서 첫달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총공격전장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전기기계공업관리국에서 1월계획을 한주일이상 앞당겨 빛나게 결속하였다.

평양 326전진공장의 로동계급이 중요대상들에 보내줄 전력캐벨, 절연선 등 중요지표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대동강전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불리한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뚫고나감에서 청천

사이나르기를 적극 진행하여 통나무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양로동당관리국과 평안북도 로동당관리국아래 립산, 강북 생산사업소들에서도 생산조건

채취기계공업국에서

채취기계공업국에서 첫달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였다. 계획수행기간 뿔과와 착암기, 갑속기 등 중요지표생산액이 성과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국적인 공업총생산액계획이 130%이상 넘쳐 수행되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국의 일군들은 각기 공장, 기업소들을 맡고 내러가 생산현장에 전파되기를 정하고 기동적인 작전, 혁신적인 일본새로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켰고있다.

안주로동공장의 로동계급이 총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첫달생산에서부터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곳 일군들은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보다 높이는 데 큰 힘을 넣는 한편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소재생분과 가공,

잠업비단공업국에서

잠업비단공업국에서 1월 인민경제계획을 106%로 넘쳐 수행하였다.

계획수행기간 국내에 각기 공장들의 로동계급은 올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로적정열을 이룩할 열의와 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퍼뜨렸다.

각기 비단실생산단위에서 생산성장화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백두산설비위인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김정숙혁명애사공장의 로동계급이 혁신의 앞장에서 기세 좋게 내달렸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앞선 작업방법들과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시차적인 힘을 넣는 한편 필요한 기구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면서 비단실생산을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

성진제강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1월 주체철강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신적성공을 이룩하였다.

5월 17일공장의 그어느일터에서나 증산열풍이 세차게 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웰남사회주의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5쪽 기념집회 및 영화감상회가 4일 평양고려호텔에서 진행되었다.

집회에는 판비엣 후즈주 웰남 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조선관외총동원운동회 대표가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조선관외총동원운동회 위원장인 서호인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서 일군들, 평양 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서호인위원장이 연설하였다.

를 주동적으로 마련하는것과 함께 서리치기를 앞세우면서 나무베기공, 밀대공, 아지따기 공들의 역할을 높여 통나무생산액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조립 등 공장간 련계를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전천작업기공장, 동림광산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직장별, 교대별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이고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생산을 중단없이 내밀어 1월 착암기 및 갑속기 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내었다.

최평남기계공장의 로동계급도 유리한 생산조건이 마련되기를 앞아서 기다리지 않고 북부지구의 판방들에 나가 수습대의 판자들을 살려내어써 증산투쟁에 떨쳐나선 판방들을 크게 고무해 주었다.

라남판방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국내에 다른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찾아내면서 생산을 중단없이 내밀어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청천강화력발전소와 순천화력발전소에서

청천강화력발전소와 순천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새해 첫달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기세로 생산돌진전을 계속 힘차게 벌이고 있다.

청천강화력발전소에서 증산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이곳 일군들은 해당 부문들과의 긴밀한 련계에 연료보장사업을 앞세우면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중요한 몫을

충과 어떤 정황속에서도 증산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나갔다.

이곳 로동계급은 출산구내화력발전소가 제기될 때마다 교대가 따로 없는 전투를 벌여 생산장황에 이바지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성구직장에서 설비들의 만가등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주체철원료를 믿음직하게 보장하였다.

보수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제기되는 설비보수전투에서 기존관념을 깨버리고 새 기준, 새 기록을 세우며 혁신을 일으켰다.

당히 제시한 주체철강산출표를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수행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성구의 로동계급은 더욱 기세충천하여 주체철강생산전투를 힘있게 벌여나가고 있다.

단천지구광업총국아래 여러 광산, 공장들에서

단천지구광업총국아래 여러 광산, 공장들에서 맡겨진 1월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대동청년영웅광산과 백바위광산에서 마그네사이트광산개발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단천마그네사이트광산과 백바위광산에서 마그네사이트광산개발계획을 각기 148%, 100%로, 교동광산에서 석탄생산계획을 130%이상으로, 단천광산기계공장에서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였다.

대동청년영웅광산 일군들은 생산된 광석을 자동차로 실어나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면서 로동자들의 증산열의를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광산의 광부들은 강추위속에서도 피파워워직업을 세차게 맡고갔으며 내뿜는 열기를 떨쳐내어 생산량을 높였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백바위광산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고품위광석채굴장을 타고 갔다 교대가 따로 없는 치열한

림업성에서

림업성에서 1월 통나무생산계획을 수행하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계획수행기간 당조직의 지도 밑에 성에서는 능력이있는 일군들을 각기 립산, 강북생산사업소들에 내려보내어 그들이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면서 필요한 대책들을 기동적으로 세워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강원로동당관리국아래 립산, 강북생산사업소들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새해 첫달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기세로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

이곳 관리국 참모부에서는 립산, 강북생산사업소들에서 결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이 주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것과 함께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생산에 효과적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개막

【평양 2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백두산의 경사스러운 명칭인 백두산체육경기대회를 맞아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개막되었다.

경기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높이 받들고 뜻깊은 올해에 체육강국건설의 전망을 열어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개막식이 4일 청춘려사 룡구경기장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홍해동지와 관계부서 일군들, 평양시내 체육인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김영훈체육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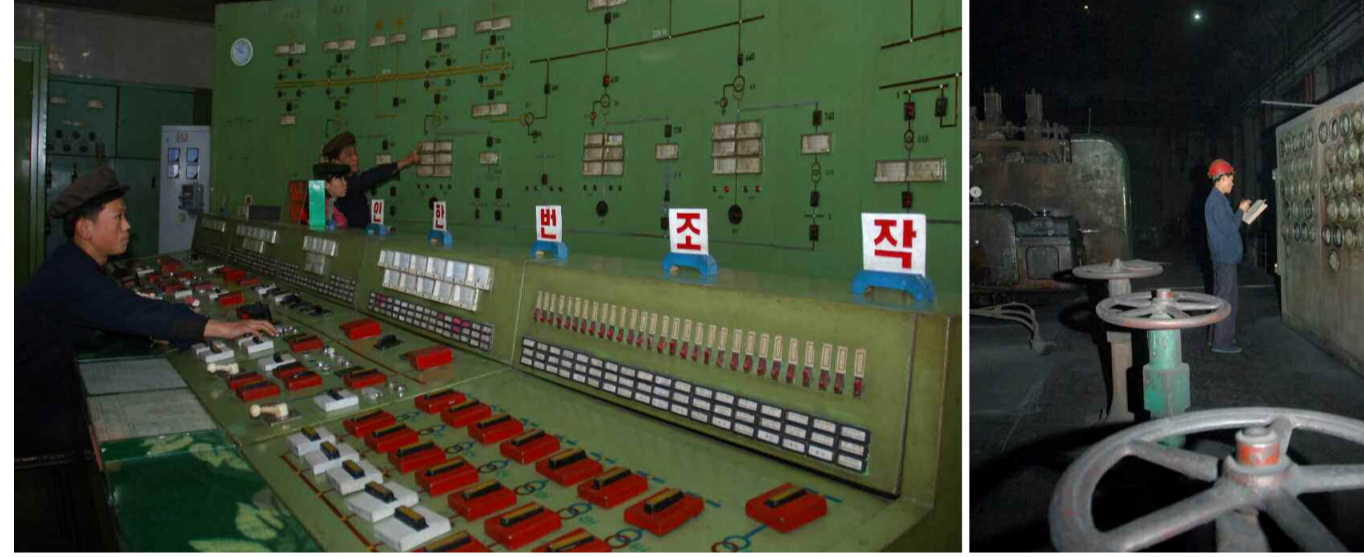
연설자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

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열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를 성대히 진행하게 된다

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열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를 성대히 진행하게 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빛내여오신 주체체육의 자랑찬 력사와 전통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더욱 즐기 차게 이어지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나라의 체육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체육인들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지난해에 국제경기들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어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에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에게 고무적힘을



당의 전투적호소에 전력증산의 동음으로 화답할 불같은 열의와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 -청천강화력발전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웰남사회주의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5쪽 기념집회 및 영화감상회 진행

그는 65년전 두 나라의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외교관계를 설정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유롭고 평화를 세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단결히 협조하여왔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경애하는 호志明주석께서 마련 하여주시고 선대수령님께서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두 나라의 전통

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2007년 평양에서 진행된 존경하는 농 두 마인동지와 위대한 김정일총비서동지사이의 역사적인 상봉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웠다고 말하였다.

웰남인민은 조선인민과의 친선협조관계를 증진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조국강산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자

국토환경보호부 일군회의 진행

국토환경보호부 일군회의가 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내각부총리들, 도당책임비서들,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중앙과 지방의 당, 정권기관, 국토환경보호부 및 련관단위 일군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국토관리총동원사업정형이 총화되고 올해에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받들고 국토의 면모를 사회주의강성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키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김용진내각부총리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언제나 국토관리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산림부지사업과 자연보호, 환경보호, 도시경관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방향과 방법들을 환히 밝혀 주신데 대하여 높이 감사하였다.

지난해 11월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기어이 실현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선포하고는 나라에 조성과의 경쟁, 산림부지전투의 모범을 올린 전환의 계기로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불철주야

자살필증을 비롯한 주체적의 기준과 표준으로 되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수없이 일떠세우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산림부문에서는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생산하여 립동복합경영대상지와 산들에 심고 나무모들을 파하와, 곱파와, 집약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말하였다.

지난해 전반적으로 기술상태를 개선하는 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적으로 강화전정리와 해안방조제보수공사, 호안림과 지피식물조성사업, 산림질과 공중전물보수, 공민, 유원지리 등이 힘있게 벌여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위무성, 대외경제성,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과 나무종자들을 중앙양묘장에 보내주었으며 다른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에서도 미림수나무를 심어줄 수 있도록 중앙사업과 중앙동원기관에서 나무모를 비롯한 중요대상공사를 적극 참가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난해에 이룩된 성과들은 전적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당의 령도를 힘있게 받들고 추진한 결과로 보아 앞으로는 더욱 더 높은 단계에 이르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부강조국건설에 참가한 인민군근로자들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개막식에서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독자의 필지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 집을 자주 찾아와 저를 친혈육의 정으로 돌보시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고마움을 눈시울을 적시곤 합니다.

그들속에는 평안북도수출입품검사검역소 신의주항본소 일군들도 있습니다.

당세 포비서 김성삼동무와 책임감경역원 최덕훈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저의 생일날이면 생일상도 차려주어 국가적인 명절을 맞을 때마다 찾아와 친혈육의 심정으로 따뜻한 돌봐

친형제, 친혈육입니다

해주고있습니다.

집에 찾아와서는 방이 좁지 않은가, 애로되는것은 없는가를 물어주시고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주고있는 이들입니다.

특히 최덕훈동무는 저의 몸보수뿐만 아니라 당의 은덕으로 대학공부를 하는 저의 아들과 딸이 방향이 되어 집에 오면 그들에게 학습용품 생활필수품도 안겨 주면서 공부를 잘하여 나라의 기둥감이 되어야 한다고 고무도

장들에 일반화함으로써 필요한 나무모를 원만히 생산보장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국토환경보호부모범공로훈위 운동상을 수여하는데에 국민군정훈장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대중적응으로 힘있게 진행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평양시와 도시, 군소재지들, 일터와 마을들을 보다 문명하게 꾸리며 도로건설과 관리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강화건설과 보수사업에 력방을 집중하는것과 함께 목욕보수업을 중점적으로 벌여 목욕장소를 농업생산과 경제발전의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생태환경, 생활환경을 더욱 훌륭하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사회적으로 내밀며 민족유산보호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전통을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설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를 높이 들고 뜻깊은 올해에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것으로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고상하고 거대한 노력 기풍 넘치며 더욱 밝고 따뜻한 우리 생활

훌륭한 가풍과 가정교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은 부모와 형제를 비롯한 가까운 혈육들과 같이 한가정에서 생활하는 과정에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는것만큼 문화정서교육에서도 가정교육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 혁명의 년대기마다에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친 수많은 혁명가, 애국자들과 더불어 그들을 낳은 혁명가정, 애국인들이 많았다.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하는 오늘의 시대에도 아름답고 참된 인간들을 낳은 훌륭한 가정들의 소행이 널리 알려져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혁명적근거인 가정, 총대가정들과 탄부가정들, 부자용해공들과 벌포공가정 그리고 교육자 가정과 과학자 가정, 산림감독원형제들과 도로관리원형제, 자동차 운전사형제들...

누가 보지 못할, 알아주지 못할 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분투하는 데서 인생의 더없는 보람과 행복을 찾는 고상한 인간들을 낳은 훌륭한 가정들에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훌륭한 가풍이 있다.

한 가정, 한 일가의 정신도덕률리와 기풍이 그대로 비껴있는 가정은 가정의 매성원들이 참된 삶을 지향하여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해

끝없이 헌신하도록 분발시키는 정신적바탕으로 된다.

위대한 혁명가, 애국자가 없듯이 애국충정도 결코 유전되는것이 아니며 훌륭한 가정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다면 훌륭한 가풍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공고해지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적자부심이 높고 주체가 확고히신 1세대 과학자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신 리승기원사가정을 두고 우리는 그에 대하여 대답하려고 한다.

위대한 대인수님들께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원사교수 박사로 내세워주시였으며 김일성상, 렬력영웅, 인민상, 인민과학자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여주신 그는 세계적인 발명으로 소문을 내고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내었으며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온 세상에서 이름을 떨친 공로있는 과학자였다.

세계가 공인하는 과학자였으나 많은 자손들을 둔 원사는 그들에게 무한히 사랑해주면서 고상한 인간성을 스승이었고 엄격한 가장이었다.

원사는 자손들에게 나라를 빼앗겼던탄에 세계적인 발명을 하고도 민족적자존심을 굽히지 않은것이 과거에 과학연구는 고상하고 민족적해탈과 굴욕속에 현명대감방에

간혀 망국노가 될 슬픔으로 가슴지던 세월에 대하여 자주 들려주곤 하였다.

수년동안 망국노과학자의 쓰라린 인생과 주체가 신인민의 과학자로 성장하여온 나날을 대비하여 들려주는 원사의 이야기는 자손들의 가슴마다에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지식인들에게는 한생명을 보살피주고 영원히 빛내어주는 고마운 사회주의 조국이 있다는 진리를 깊이 새겨주었다.

리승기원사는 늘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 과학기술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잘 받들어 받아안은 크나큰 사랑과 은덕에 꼭 보답하여야 한다고 이르고 하였다.

대를 이어 과학과 기술로 당과 수령을 받들어가는것이 우리들의 숭고한 도덕리이다. 이것은 리승기원사의 당부이자 과학자로서의 어질 수 있는 가르침이었다.

원사는 앞날에 대한 자손들의 포부와 희망에 대해 깊이 판시하셨다. 전공학문을 택하고 과학연구종자와 대상을 하나 골라잡아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바라시고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당에서 중시하고 깊은 관심을 돌리는 문제라면 그 어떤 학문이라도 주저없이 선택하여 한다고 임버릇처럼 외쳤다. 황철의 자동화를 빛나게 실현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져 자손의 학문을 돌려 자동화를 전공하게 하였고 당에서 의도하는 문제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손자, 손녀들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생명과학분야를 파고들게 하기도 하였다.

원사는 과학탐구의 길에 들어선 자손들이 혹 한순간이라도 헛웃을 팔때라, 단 한번이라도 길을 헛되길세라 자신의 지나온 생활과 과학자들의 인생행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과학자의 본분을 깨우쳐주곤 하였다. 과학의 요새를 점령하는 길에서는 명석한 두뇌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것은 드립없는 과학적신념과 건실不拔의 의지, 불같은 정열이라고 자손들에게 단단히 가르치시게 하시지 않았다.

생활의 끝이마다에서, 험난한 과학탐구의 극한 고비마다에서 조선의 과학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새겨주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원사의 고무격려하는 자손들모두가 지칠줄도 권일줄도 모르는 열정을 안고 탐구의 나래를 한껏 펼치게 했다.

리승기원사의 일가에서는 인민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를 비롯한 수십명의 학위학식소유자들이 나왔다. 그들은 거듭되는 사색과 피리는 탐구로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참으로 리승기원사는 과학기술로 나라앞에 세운 공적으로

보나 당에 대한 충정을 가풍으로 세워 자식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운것으로 보나 참된 애국자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인 리승기원사의 말을 인민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 리종파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는 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사람의 인격증에서 첫번째로 꼽아야 할것은 도덕품성이라고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로되지 않은 사람은 당에도 나라에도 충성할수 없다고 말씀하곤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리승기원사가 어떻게 자손들을 겸손하고 겸박하며 건전한 도덕품성을 지니도록 교양하였는가에 대하여 더 쓰지 않는다. 다만 그의 저술에서 인민반에서나 집단에서 겸손성과 겸박성, 소탈성과 건전한으로 하여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격자였더라는 데 대하여 언급할뿐이다.

가정에서의 도덕교양, 이것은 자식들이 수령의 은덕을 알고 당과 수령을 순결한 관심과 의지로 받들 줄 아는 참된 사람들로, 나라의 역군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첫 공정이며 훌륭한 가정교양은 훌륭한 가정의 뿌리라고 된다.

이것은 리승기원사의 일가를 비롯한 우리 조국과 우리시대가 자랑하는 훌륭한 가정들에서 찾아보게 되는 보편적 진리이다.

본사기자 김치곤

돌보이는 모습들

새 세대의 도덕의리

금성식료공장의 선우영미 동무는 만경대구역 금성3동에 살고있는 박명환, 박명순 전생로병들이 친필처럼 사랑하는 처녀이다.

공장 청년동맹 일꾼인 그는 자주 전생로병부부의 집에 찾아와 지성을 다할뿐 아니라 가릴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이야기를 들곤 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전희의 청춘들의 전생로병부부의 집을 자

주 찾곤 합니다. 조국을 위해 피흘린 전세대의 정신세계를 더 많은 청년들이 배우게 하고 싶습니다.

선렬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본받아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는것이 후대들이 전세대들앞에 지닌 의무이고 망심이며 도덕의리이다.

오늘도 선우영미 동무와 금성식료공장 청년동맹원들은 전세대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그처럼 빛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혁신자의 마음

어가 피곤을 풀라고 하였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두루, 세로 일을 하면 공장이 잘되고 공장이 잘되면 나라일이 잘될 것이 아니요.》

집단앞에 나선 과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수행하여야 하며 그뿐 아니라 두루, 세로 더 많은 일감을 안고 일

하는것이 집단과 사회앞에 지닌 도덕적의무가 아니겠는가.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 사회에서는 도덕문제가 이렇게 서는 것이다.

조선산식료공장의 혁신자 선우영미 동무가 바로 집단과 사회앞에 지닌 도덕적의무를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의 뜨거운 노력을 기는 것이요. 만일 내 가 사업을 망한데 한을 랑비하게 한다면 망직공들에게 인사 가 안되지.》

그 어떤 기쁨과 문명을 향유 하기 전에 그것을 창조한 사람들의 수고를 헤아려 귀중히 여기고 있는것이 바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이고 의리라고 그는 생각하는 것이다.

리 신 향

수필 한 생의 교양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레이도덕이 있는 사람은 인격이 높아지고 사의와 집단,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지만 레이도덕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생활에서 우리는 은근히 돌보이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계절이 밝고 외모가 단정하며 좋은 일은 남에게 양보하고 웃음은 말없이 찾아오는 사람들, 그들앞에서는 영웅과 박사, 일군을 막론하고 누구나 머리를 숙이며 고결한 인간됨됨에 쉽게 반하기도 한다.

그렇듯 높은 인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얼마전 어느 한 중앙기관에 나간 기회에 나는 훌륭한 품성을 지닌 정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동무어머니가 훌륭한 분이였습니다. 가정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책은 또 얼마나 많이 본다고요. 알찬 말이 새처럼 든것이 많으니 결론할수밖에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말이였다. 일리가 있었다.

이러 본인을 만났는데 얼굴 표정과 몸가짐에서 지성미와 함께 고결한 품격이 엿보였다. 사연을 안 그는 면주해하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젊은 시절의 한때 외지에 나가 일을 한적이 있는 그는 집단생활의 물리를 잘 지키지 못해 퇴계 비판을 받았다. 후에 그 일을 알게 된 그의 어머니는 내가 언제까지 날 따라다니며 가르치려고 하냐고 하며 속상해하였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한생토록 나의 곁에서 순간순간 항상 지켜보며 일깨워 주고 바로잡아줄 교양자는 과연 누구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인생의 첫 교양자는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곁을 때려줄뿐 아니라 손가락을 똑바로 쥐는 법과 함께 식사할 때 열사람들에게 실례가 되지 않게 하는 몸가짐과 행동거지를 비롯하여 일간생활에서 지켜야 할 초보적인 레이도덕을 차근차근 가르쳐준다. 아이들의 서로 다른 말씨를 못차림도 어머니가 하나하나 배워준것이 또 또한 어머니에게서 본받았 것이다.

학창시절의 선생님을 역시 인간의 교육교양에서 무시할 수 없이 중요한 몫을 맡은 필수적인 교양자였다.

그런가하면 사회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것을 배우게 되는가.

가정교양, 학교교양, 사회교양!

이 모든것이 인격형성과 인간수양에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차지하는것은 틀림이 없지만 한 부모의 슬하에서 자랐다고 하여 매 자식의 됄됨이 똑같지 않고 이룬높은 한 교육자한테서 배운다고 하여 다 모반학생이 아니며 세상에 제일 아름답고 훌륭한 우리 사회에서 산다고 하여 매 사회생활의 물리도덕적 품도의 차이가 결코 없지 않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완성된 혁명가가 없다는것은 보통사람으로서도 말할 필요가 없는 끝없는 놀이를 말하듯이지 아니라 자신의 정신도덕적수양에서 만족을 모르는 혁명가들의 높은 요구와 격렬한 품성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인생의 순간순간 결에서 항시적으로 지켜보면서 일깨워 주며 혹은 인격질을 헛되게 세라 바로잡아주고 가다듬게 해주는 귀중한 교양자, 인생의 교양자라는 다름아닌 자기자신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한 중앙기관 정무원과의 의미심장한 이야기에서 나는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었다.

한생의 교양자인 자기 자신!

그렇다.

인생과 운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것처럼 고결한 인격수양의 주인 또한 자기 자신이다.

본사기자 허명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애로부터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고 훌륭한 재자의 뒤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학교는 사람들을 고상한 도덕품성을 갖춘 참다운 인간으로 키워내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 교양이 어떤 교양을 받는가 하는것은 사람들의 품격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얼마전 우리와 만난 동종산 구역 새별고급중학교 교원 강명태동무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난해 학교에서는 구내에 풍종의 전파를 심는 작업이 학생들의 피의활동으로 진행되었다.

학교별로 맡은 경정이 별이였다. 교원들과 학생들은 걸싸게 흙과 돌을 옮기며 나무를 나르며 신나게 일손을 다지쳤다. 저마다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경쟁이 벌리는 학생

을 바라보는 강명태동무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서로를 위해주는 학생들의 기특한 마음들이 더없이 돋보였다.

어느덧 학생들과 함께 잔디싱기를 끝낸 강명태동무는 주변까지 말끔히 정리했다.

아직 다른 학교의 학생들은 잔디싱기를 계속하고있었다. 학생들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이런 강명태동무는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일하는 곳으로 향했다. 그들을 조금이나마 돕고싶어서였다.

부지런히 삽질을 하던 강명태동무는 귀익은 목소리들이 들려오는 바람에 일손을 멈추었다. 얼굴을 들면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정으로 말미암은 활기찬 학생들이 곁에서 함께 일하고있지 않는가.

강명태동무는 학생들에게로 다가갔다.

《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이 일찌기 대답했다.

《우리도 선생님께서 동무들을 돕고싶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강명태동무는 감회깊은 어조로 말했다.

《그날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는다 하는 말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스승의 말과 행동은 학생들이 자기보다

에게 들도 없는 교양으로 된다.

연제인이 1학년 6반 김수정학생은 어머니와 함께 길을 가고있다.

약국앞을 지나던 김수정학생이 별안간 멈춰섰다. 그러더니 약국으로 뛰어들어갔다. 영문을 알수없는 어머니도 딸의 뒤를 따랐다. 여자가 약들이 가득한 매대들을 일별하던 김수정학생의 두눈이 반짝이였다.

《여기 있구나!》

너무 좋아 손뼉까지 치는 딸에게 어머니가 사연을 물었다.

본사기자 조경철

제자들의 맑은 거울

이런 강명태동무는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일하는 곳으로 향했다. 그들을 조금이나마 돕고싶어서였다.

부지런히 삽질을 하던 강명태동무는 귀익은 목소리들이 들려오는 바람에 일손을 멈추었다. 얼굴을 들면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정으로 말미암은 활기찬 학생들이 곁에서 함께 일하고있지 않는가.

강명태동무는 학생들에게로 다가갔다.

《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이 일찌기 대답했다.

혁신자의 영예

펼쳐진 어제날

야간지원동맹원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그를 또 얼마나 기뻐해라 하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은 기뻐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앞에, 시대에 돌보이는 모습으로 사는 처녀, 꽃보다도 고운 모습이였다.

본사기자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반제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이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각종 반동사상과 미신이 류포되어 마약과 같이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몽매하게 만들고있으며 악육강식의 생활방식이 조장되어 패륜패덕과 살인, 강도와 같은 사회악이 판을 치고 사람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다심하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웅심다고 한다.

자식을 낳아키우는 어머니와 함께 정과 사랑을 합쳐주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자식에게 조용히 가르쳐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머니가 듣기 힘들어하는 아픈 때도 들이감겨 자식이 언제나 훌륭한 인생길을 가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던가.

어머니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안고 일러에 성실한 노력을 바쳐가는 아버지들의 모습은 자식들의 기억속에 인생의 거울로, 아름다움 추적으로 남는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돌격전에 언제나 앞장서왔으며 오늘 은 자식들과 함께 절명기슭에

사파바다를 펼쳐가는 618건 설들격대 항강도광업련합기업소내대 최봉상동무나 은 가족의 소련대 마을까지 모아 100정도의 수림을 가꾸고 지켜가는 구성시야수로양식 로동자 구분 길동무와 같이 웅심되고 뜨거운 사랑을 지닌 훌륭한 아버지들이 많아 우리의 생활은 더욱 밝고 따뜻한것이다.

하지만 황금만능, 악육강식의 생존방식이 지배하는 남조선사회의 현실은 너무나도 판이하다.

패륜패덕의 악행이 만무하는 남조선땅에 과연 어떤 아버지들이 있는가를 보려고 하자.

지난해 4월 경성부도 구미시에서는 태어난지 2년밖에 안된 어린이가 집에서 굶어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어린이로 말하면 어려운 생활고로 하여 별거생활을 하는 부부의 아들로써 아버지와 함께 살고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는 전자로 약에 빠져 아이는 돌보지 않고 보통 2-3일 지어 한주일이나 아이들을 집에 가둬둔채 오락 장들을 놀아다녀며 놀음에 미쳐있었다.

결국 돌봐주는 손길이 전혀

없는 집안에서 어린 아들이 굶어죽고말았다. 아들이 굶어죽은 후 아버지라는자가 부린 추대는 사람들의 정의를 자아냈다.

한주일만에 집에 들어온 그자는 아들의 시신을 보고서도 또다시 오락장에 가서 만세도 못 놀았단것이다. 그리고 며칠 동안이나 아들의 시체를 모포에 싸서 배관대에 숨겨두었다가 그 사실이 알려지는것이 두려워 시신을 비밀가방에 넣어 열두에 불매 가져다버리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 못할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신기록보유자》 되는 날로 늘어나고있다.

이러한 패륜패덕의 악행이 만연되고있는 속에 더욱 사람들을 아연케 하는것은 이러한 범죄와 목숨걸고 싸워야 할 경찰이나 검사들이 오히려 그것을 묵인하고 동조한다는데 있다. 2012년 1월부터 6월사이에만도 등록된 공무원 범죄 3500여건중에서 범죄범위가 890여건으로서 범죄정황이 전면 제1위를 차지하였다. 괴뢰법무부는 490여건으로서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다.

남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이른바 민중을 보호하고 법을 지킨다는 경찰청과 법무부가 이렇듯 범죄진수에서 자라라라 때루고있는 판이니 남조선사회가 어느 지경으로까지 썩어들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자본주의세계에서 손꼽히는 범죄의 소굴로 전락된 남조선 사회, 외세의 식민지로 장장 70년동안 흉수처럼 범람하는 미국식반동문화와 생활방식에 저물대로 저물어 조상전래의 미풍과 레의도덕, 초보적인 인륜마저도 장거리 말살된 그 땅에서 패륜패덕이 만연되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 아니겠는가.

사랑과 정에 살며 고상하고 건전한 도덕기풍, 생활기풍이 넘치는 행복한 사회에서 사는것은 인류의 리상이고 꿈이다.

그 리상과 꿈이 오늘 이 땅에서 펼쳐지고있다.

모든 사람들이 인격적지, 인민사랑의 정치를 떠나가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사회주의대가정의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 돕고 이끌어 사랑과 정에 살고 고상하고 건전한 도덕기풍과 생활기풍속에서 보다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의 사회주의, 이런 아름다움 땅에서 우리가 산다.

승 철 진

이른바 민중을 보호하고 법을 지킨다는 경찰청과 법무부가 이렇듯 범죄진수에서 자라라라 때루고있는 판이니 남조선사회가 어느 지경으로까지 썩어들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자본주의세계에서 손꼽히는 범죄의 소굴로 전락된 남조선 사회, 외세의 식민지로 장장 70년동안 흉수처럼 범람하는 미국식반동문화와 생활방식에 저물대로 저물어 조상전래의 미풍과 레의도덕, 초보적인 인륜마저도 장거리 말살된 그 땅에서 패륜패덕이 만연되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 아니겠는가.

사랑과 정에 살며 고상하고 건전한 도덕기풍, 생활기풍이 넘치는 행복한 사회에서 사는것은 인류의 리상이고 꿈이다.

그 리상과 꿈이 오늘 이 땅에서 펼쳐지고있다.

모든 사람들이 인격적지, 인민사랑의 정치를 떠나가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사회주의대가정의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 돕고 이끌어 사랑과 정에 살고 고상하고 건전한 도덕기풍과 생활기풍속에서 보다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의 사회주의, 이런 아름다움 땅에서 우리가 산다.

승 철 진

전 백 배의 고기를

연안군 정점농동장에서 반일계급교양을 일회성있게 벌려나고있다.

일군들은 농장원들에게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해어놓지 않는 불행과 고통을 깨우려고 자기들의 죄행을 사죄하고 배상할 대 선 저들의 조선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제정의 길로 미친듯이

나가고있다고 하면서 만약 일본 반동들이 우리의 자주독립과 존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수십년동안 다지고자하는 선군 군국주의자들이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해어놓지 않는 불행과 고통을 깨우려고 자기들의 죄행을 사죄하고 배상할 대 선 저들의 조선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제정의 길로 미친듯이

에 류레에는 수만과 양속의 시대를 강요한 일제의 야수적만행은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고 하면서 아직도 반공반국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는 일본반동들을 단호히 징벌하고 천백배의 피값을 받아낼 결의들이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앞장서나가고 있다.

본사기자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결의에 넘쳐있다. 신 천 박 물 판 에 서 - 본사기자 리명 남 찍음

